

대구지역 근대한옥의 공간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Composition at the Modern Korean Houses after the Time of Enlightenment in Daegu Province

윤재웅*
Yoon, Jae Wo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composition at the Modern Korean houses after the time of the enlightenment in Daegu province. The orientation of the houses, way of the entrance and its relation to the inner house(An-Chae), the type of floor plan, the compositional methods of exterior space, and the usage of exterior space are investigated. As the results, the Modern Korean houses after the time of the enlightenment in Daegu province are showed the symptom of the modernization in aspect of the site plan and the compositional methods of exterior space.

Keywords : Modern Korean houses, the type of floor plan, the compositional methods of the exterior space

주요어 : 근대한옥, 평면유형, 외부공간구성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개화기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커다란 사회, 문화적 변동이 이루어졌다. 조선후기부터 일제기에 걸쳐 시행된 사회구조의 변혁과 외래문화의 유입은 사회전반을 근대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혁은 건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점진적으로 변화해오던 한국전통양식의 주거인 한옥을 빠르게 변모시켜나갔다.

한국 근대건축에 대한 논의는 70년대 후반 이후 활발히 이루어져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하여왔으며, 근년에 들어 근대화를 양식건축의 이입과 정착의 과정으로 간주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전통건축의 지속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근대기의 주택, 즉 근대한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도시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변화의 과정이 느

리게 진행되는 농촌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소홀하였으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도 단위 마을 또는 단위 건물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구조, 배치 및 평면 등을 다루고 있어¹⁾ 지역적 특성을 밝히는 데는 다소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를 수용해 가는 한국전통주택의 변화과정을 근대화과정으로 보고, 개화기이후 - 1950년대에 걸쳐 건립된 전통주택을 근대한옥으로 규정²⁾하여 대구지역 근대한옥을 대상으로 공간 구성적 특성을 구

1) 유영희 외(1995), 1930년대 이후 도시한옥 주공간과주생활의 변화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권 3호.

이호열(1997), 경북지방 근대한옥의 유형과 성격, 건축역사연구, 제6권 3호.

정명섭(1997), 남평문씨 분리 세거지의 마을과 주거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8권 3호.

2) 조선후기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를 수용해 온 전통한옥은 그 형식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재료, 기술을 적절히 구사하여 내외 공간구성과 이용방식, 입면구성 등에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개화기 이후~1950년대의 한옥을 근대한옥으로 규정하였다. 용어와 시기구분은 보다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된 후 재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교수, 공학박사

명함과 동시에 주거사 연구의 자료로 정리해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격변기로 볼 수 있는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대구광역시에 건립된 근대한옥을 대상으로 생활상의 변화를 수용하는 주거공간요소인 배치 및 평면, 외부공간(마당) 구성방식 등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장실측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대구광역시 고 건축물 전수 조사사업에 의해 발간된 「대구의 고 건축³⁾에 수록된 전통한옥 총 42호 중 건립연대가 본 연구의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원형이 변형된 19호 가옥을 제외한 23호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참조> 현장실측조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23호 중 본 연구실에서 기 실측한 12호를 제외한 나머지 11호 가옥에 대해 2003. 6. 27-7. 26간 문헌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II. 배치 특성

대구지역 근대한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몸체인 안채와 대문의 좌향, 주동구성 및 배치형식과 진입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1. 안채, 대문의 좌향

전통주택에 있어서 안채의 좌향 설정은 주거배치의 출발점이 되며, 대문은 단위 주거와 마을길을 연결하는 요소로서 주거배치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고 단위 주거와 마을길의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인

3) 대구광역시에서는 2000.3~9월 대구광역시 고 건축물 전수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조사·연구보고서 등 관련 문헌조사와 더불어 6개구 1개군 산하 리, 동사무소에 고 건축물 소재 파악을 의뢰하여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였다. 대구광역시 고 건축물 전수조사는 2000. 12~2002. 2월 대구광역시에서 작성한 고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 대학원생과 울산과학기술대 학생들로 구성된 조사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달성군의 고 건축물조사는 대구대학교 박물관(1997), "달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1996), "남평문씨 본리 새거지 보존방안 연구 및 실측조사보고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표 1. 연구대상가옥

	가옥명	건립연대	소재지
1	최병용	19세기말	동구 둔산동 384
2	채효기	1904	동구 미대동 236
3	채경기	1902	동구 미대동 236
4	이경우	1905	동구 송정동 600
5	채중서	19세기말	동구 지묘동 1146
6	김화엽	20세기초	북구 조야동 127
7	박종대	1930	달성군 하빈면 묘리 692
8	정병규	1916	달성군 다사 문양1리 620
9	김광부	1954	달성군 옥포 금흥1리 135
10	배명근	1936	달성군 옥포 반송2리 301
11	김특수	1955	달성군 논공 상리 536
12	문근만	1935	달성군 화원 본리 376-2
13	문대갑	1936	달성군 화원 본리 375-1
14	문보갑	1933	달성군 화원 본리 398-2
15	문승기	1910	달성군 화원 본리 397-1
16	문시갑	1924	달성군 화원 본리 374-2
17	문영갑	1925-	달성군 화원 본리 376-3
18	문유만	1936	달성군 화원 본리 376-4
19	문정기	1927	달성군 화원 본리 373
20	문희지	1940	달성군 화원 본리 399-1
21	곽두식	1892	달성군 현동 산2리 618-2
22	곽재옥	1800말	달성군 유가 한정2리 97
23	곽원순	1860	달성군 유가 한정2리 132

자이다⁴⁾.

조사대상 가옥들의 안채와 대문의 좌향을 <그림 1>에서 보면 안채는 마을 주산(主山)의 위치에 따라 정남에서 동쪽 또는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남동향 또는 남서향으로 배치된 경우가 각각 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향-서북향 순으로 나타나 남향 선호 경향을 볼 수 있다. 대문의 좌향은 남동향이 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서향-동북향-서향-남향 순으로 나타나 안채의 좌향과 같이 남향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주동구성 및 배치형식

대구지역 근대한옥은 -자형의 안채와 사랑채를

4) 한지만의(2001), 경기지역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7권 9호, P.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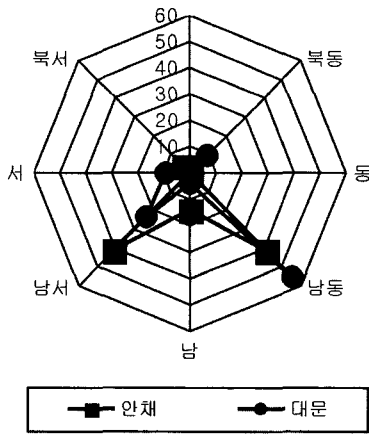


그림 1. 안채와 대문의 좌향

두고 여기에 1~2동의 부속채를 부가하여 구성된 별동형이 대부분이다. 주동 구성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채+사랑채+부속채 1동」, 「안채+사랑채+부속채 2동」으로 구성된 경우가 각각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안채+사랑채」 21.8%였으며, 사랑채 없이 -자형 안채와 부속채만으로 구성된 「안채+부속채 2동」과 역 7자형의 안채에 -자형 사랑채를 접속시킨 서울지방 민가형의 「안채·사랑채」 순으로 나타났다.

주동 구성방식은 안채와 사랑채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를 앞뒤로 나란하게 근접 배치한 "직열형"이 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랑채가 안채에 직교하여 배치된 "직교형"과 기타형이 각

표 2. 동구성 형식 n=23, 빈도(%)

구분	동구성				동구성 방식			계
	안채	사랑채	부속채 (1)	부속채 (2)	직열형	직교형	기타	
별동형	○	○	·	·	5(21.8)	·	·	5(21.8)
	○	○	○	·	5(21.8)	2(8.7)	·	7(30.5)
	○	○	·	○	6(26.1)	1(4.3)	·	7(30.5)
	○	·	○	·	·	·	1(4.3)	1(4.3)
	○	·	·	○	·	·	2(8.7)	2(8.7)
접속형	○	○	·	·	1(4.3)	·	·	1(4.3)
계					17(74)	3(13)	3(13)	23(100)

각 13%이다.

배치유형별 분포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튼 ㄷ자형이 3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튼 ㄱ자형 30.5%, =자형 26.1%, ㄷ자형과 튼 7자형이 각각 5%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대구지역 근대한옥의 배치 특성은 -자형의 안채와 사랑채를 앞뒤로 나란하게 두고 그 사이에 1~2동의 부속채를 부가하여 구성하는 보편적 동 구성에서 안채에 사랑채를 접속시키거나 사랑채 없이 안채와 부속채만으로 구성하고, 특히 도시 근교의 중상류 주택의 경우, 주동의 배치형식이 안채를 중심으로 부속채들을 놓아 안마당의 폐쇄도를 높이는 튼 ㄷ자형, 튼 ㄱ자형으로 변화되어 가

표 3. 동구성형식 및 배치유형 n=23, 빈도(%)

유형	배치형식	빈도(%)	계
=자형		5(21.8)	6(26.1)
		1(4.3)	
튼 ㄷ자형		4(17.5)	8(34.8)
		2(8.7)	
		1(4.3)	
		1(4.3)	
튼 ㄱ자형		6(26.2)	7(30.5)
		1(4.3)	
ㄷ자형		1(4.3)	1(4.3)
튼 7자형		1(4.3)	1(4.3)
계	23(100)		

범례: ■ 안채, □ 사랑채, ▨ 부속채

고 있어 안채가 주생활의 중심장소로 변모되어 가면서 사랑채의 기능이 점차 축소, 소멸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족마을의 발달에 따른 택지의 제약과 농 작업의 수행, 가사운영방식의 직계화 등에 따른 근대적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합리적 사고의 발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3. 진입방식과 안채와의 관계

주거의 주 출입구인 대문과 이를 통한 주거영역으로의 진입방식은 안채는 물론 사랑채, 부속채의 배치와도 관련을 갖는다. 조사대상 가옥의 진입방식은 안채의 정면을 향하는 정면 진입방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우측면, 좌측면 순이었다. 이러한 진입방식과 안채와의 관계를 배치유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정면 진입방식은 안채와 사랑채를 앞뒤로 나란하게 배치된 경우로 사랑채 정면에 대문을 설치하거나 사랑채에 대문간을 설치하여 위엄과 격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측면 진입은 안채 정면의 대각선 방향인데 이는 기존 형성된 마을 안길, 안채와 직교되게 배치된 사랑채, 사랑채 없이 안채 좌, 우측에 부속채를 배치한 것 등의 제약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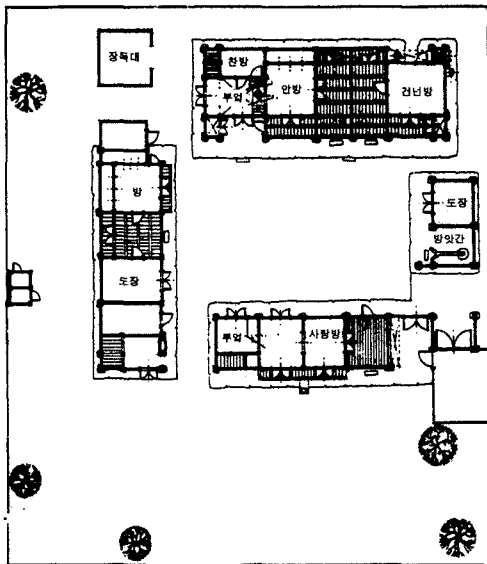


그림 2. □자형 배치의 예(문시갑 가옥)

III. 평면 구성의 특성

1. 안 채

안채의 구성형식은 대부분 별동형이었으나 사랑채와 한 동을 이루는 접속형도 나타났다. 평면형식은 부엌·안방·대청·건넌방이 일렬로 배열되는 남부지방형 민가의 보편적 유형인 一자형이 대부분이고, 부엌·안방 열과 대청·건넌방 열이 직교하여 배열되는 경기 지역민가형인 역 7자형(곱은곱자형)도 나타났다.

一자형 안채의 규모는 남부지방형의 기본형인 정면 4칸이 4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마루칸이 1칸 확장된 5칸형 47.9%, 6.5칸형 4%순이었으며, 칸 구성⁵⁾은 홑집의 형태로 홑집 전·후에 퇴칸이 있는 "퇴칸집"이 78.3%, "홑집형"이 17.4%였고, 전·후면에 퇴가 발달하여 부분적으로 복열화 경향을 띠고있는 "겹집"도 나타났다. 이들 퇴칸은 빗마루, 반침, 벽장으로 꾸며지거나 방으로 사용되고 있어 내부공간의 확장과 실 분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통주택과는 달리 부엌의 앞쪽에 전퇴를 설치하고 부엌 출입구를 측면에 두거나 부엌 앞 전퇴 부분에 수장공간을 설치하여 부엌 관련용품의 수납장을 부설하기도 하였다.

역 7자형 안채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엌·안방 열과 직교하여 마루·건넌방을 두고, 오른쪽에 사랑방·사랑마루·누마루를 연결 배치하여 남

표 4. 안채의 평면구성

구분 유형	동구성형식		규모(정면 칸수)			칸 구성형식		
	별동형	접속형	4칸	5칸	6.5칸	홑집	퇴칸집	겹집
一자형	22 (95.7)	.	11 (47.8)	10 (43.6)	1 (4.3)	3 (13.1)	18 (78.3)	1 (4.3)
역 7자형	.	1 (4.3)	.	1 (4.3)	.	1 (4.3)	-	-
계	22 (95.7)	1 (4.3)	11 (47.8)	11 (47.9)	1 (4.3)	4 (17.4)	18 (78.3)	1 (4.3)

5) 최 일(1989)은 조선후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 주거에 관한 연구에서 칸구성 형식을 깊이 방향의 분화형식에 따라 실 구성이 한줄로 되어 있는 홑집, 방과 마루에 전퇴, 후퇴가 부가되어 있는 퇴칸집, 방구성의 일부 혹은 전부가 두줄로 구성되고 퇴가 부가되어 있는 겹집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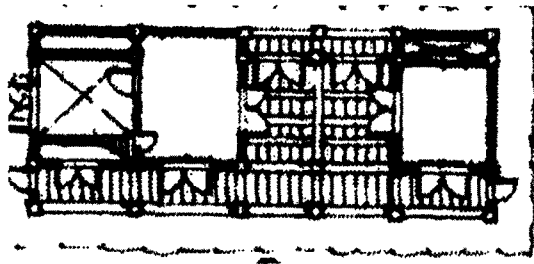


그림 3. 채종서가옥 안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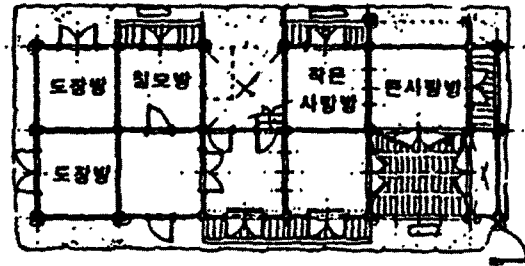


그림 5. 문승기가옥 사랑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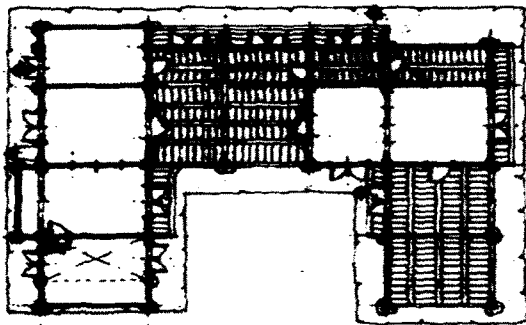


그림 4. 채효기 가옥 평면도

표 5. 사랑채의 평면구성

구분	동구성			규모(정면 칸수)						칸 구성		
	별동형	접속형		2칸	3칸	4칸	5칸	6칸	홀집	퇴칸집	겹집	
유형	안채	곡간채	대문채									
1자형	15 (75)	1 (5)	1 (5)	1 (5)	4 (20)	9 (45)	2 (10)	1 (5)	8 (40)	6 (30)	3 (15)	
7자형	1 (5)	1 (5)	.	.	1 (5)	.	.	
역N자형	1 (5)	.	1 (5)	.	1 (5)	.	1 (5)	.	.	2 (10)	.	
계	17 (85)	1 (5)	1 (5)	1 (5)	5 (25)	10 (50)	3 (15)	1 (5)	9 (45)	8 (40)	3 (15)	

너공간을 분리하고, 마루 뒤쪽에는 후퇴를, 건넌방과 사랑방 뒤쪽에는 뒤주칸·두지를 구성하여 부분적인 겹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 구성의 변화는 생활상의 요구에 대응하여 동선상의 전이공간, 각종 수장공간, 실 면적의 확대 요구 등을 수용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역7자형의 평면형식은 대구지역에서 보지 못한 것으로 생활의 합리화, 편리함을 추구하는 근대적 사고가 공간구성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랑채

사랑채 평면유형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자형이 대부분이고 안채나 고평채, 대문채 등과 접속되어 1자, 역N자형을 이룬 것도 있다. 규모는 전면 2칸에서 6칸의 누마루형까지 다양하며, 이들 중 전면 4칸이 가장 많이 나타나 규모가 축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칸 구성은 홀집과 퇴칸집이 각각 45%, 40%, 겹집이 15%였고, 실 구성은 1~2칸 규모의 마루 좌우

에 온돌방을 일렬로 배열하거나 마루 칸을 줄이고 도장, 헛간 등의 수장공간이나 방의 수를 늘려 구성하는 등 다양하며, 퇴칸이 있는 집의 전퇴는 주로 마루와 연결된 툇마루로 동선상의 전이공간이 되고, 후퇴는 온돌방과 연결하여 반침, 벽장 등의 수장공간으로 꾸미거나 툇마루를 설치하여 안채와의 동선연결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사랑채는 안채나 곡간채, 대문채들과 접속되거나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전·후면에 퇴가 발달하면서 방과 수장공간의 증가와 더불어 실 구성이 부분적으로 복잡화 현상을 보이는 등 사랑채 기능의 복잡화, 집약화 경향을 볼 수 있다.

3. 부속채

조사대상 가옥의 부속채들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안채의 전면 우측이나 좌·우측 모두에 안채와 직교하여 1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안채의 우측은 아래채, 좌측은 고평채 또는 방앗간채로 불리어 지고 있다. 이들 부속채의 규모는 대부

분 3~4칸으로, 아래채는 대개 방, 도장간, 헛간 또는 외양간으로 구성하였으나 마루를 가운데 두고 방, 도장, 헛간을 둔 경우도 있으며, 고방채는 도장간, 헛간, 방앗간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안채가 주생활의 중심장소가 됨에 따라 부족한 침실간의 확보, 생활용품·곡류·농기구 등의 보관을 위한 수장공간의 확대 요구 등을 수용하기 위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IV. 외부공간 구성의 특성

대구지역 근대한옥의 외부공간 즉 마당의 구성형식⁶⁾은 미분화형이 4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반형 39.2%, 분리형이 17.4%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대로 갈수록 사랑마당의 기능이 약화되고 농작업 기능이 소멸됨에 따라 안마당이 주생활의 중심장소가 되고 중요한 부속채들이 안마당에 놓여 튼ㄷ자, 튼ㄱ자 형의 배치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지역 근대한옥 배치의 대표형인 튼ㄷ자, 튼ㄱ자형의 배치형에서 마당은 기본적으로 안마당, 사랑마당, 옆 마당, 뒤안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각 마당들은 서로간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위치에 따라 기능과 내용, 공간구성방식이 다르다. 안마당은 一자형의 안채와 사랑채를 두고 그 사이의 좌우에 아래채, 고방채(방앗간채) 등의 부속채들로 위요 되어 외부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이다. 또한 안채와 사랑채에는 안마당 쪽으로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아래채와 고방채의 전면도 안마당을 향해 열려있어 내, 외부공간의 연결이 용이하다. 안마당은 가족의 일상생활기능 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전이적 공간, 조망, 휴식 등이 강조되는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랑마당은 대개 마을길을 사이에 두고 형성되며, 안마당과는 사랑채 또는 문간채에 의해 구분되며, 타작이나 농사준비 등 농작업

으로 이용되었으나 농작업 기능이 소멸되면서 안마당으로의 통로역할과 안과 밖의 내외구분이라는 상징적 기능만 남아 있다. 튼ㄷ자형이나 튼ㄱ자형 집에서는 안채의 부엌 옆 아래채 우측에는 옆 마당, 안채의 안방과 부엌의 뒤편에는 뒤안 공간을 갖는다. 옆 마당은 장독대, 우물, 식품저장고 등이 시설되고 주로 음식장만, 세면, 세탁 등의 사적행위가 이루어진다. 부엌, 안방의 뒤안 공간은 출입, 살림도구, 농기구 등의 수장공간으로 이용되었으나 근년에 들어 이들 기능을 부엌을 확장하여 내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V. 결 론

1. 배치특성

주동구성은 주요 몸체인 안채와 사랑채를 기본으로 1~2동의 부속채를 부가한 「안채+사랑채+부속채」 형식이 많았으며, 「안채·사랑채」, 「안채+부속채」 형식이 나타났다. 배치유형은 안마당의 폐쇄도를 높이는 튼ㄷ자형과 튼ㄱ자형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 안채가 주생활의 중심장소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입방식은 안채의 정면을 향하는 진입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우측면, 좌측면 순이었다. 안채 정면을 향하는 진입방식은 안채 앞에 배치된 사랑채나 사랑채 앞에 대문간을 설치하여 위엄과 격식을 갖추려는 의도로 보이며, 측면진입은 기존의 마을 안길, 안채와 직교하여 배치된 사랑채, 안채 좌·우측의 부속채들에 의한 제약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2. 평면구성

안채는 남부지방형 민가의 보편적 유형인 一자형으로 홑집 전·후면에 퇴칸이 있는 "퇴칸집"이 가장 많았으나 부엌, 안방열과 대청 건너방열이 직교하여 배열되는 역ㄱ자형이나 전·후면에 퇴가 발달하여 칸구성이 부분적으로 복열화 경향을 띠는 "겹집"이 나타나면서 내부공간의 확장 및 실 분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랑채는 一자형으로 전면 4칸 규모의 홑집, 퇴칸집이 많고, 안채, 곡간채, 대문채 등과 접속되어 역ㄷ자형을 이루거나 전·후면에 퇴가 발달하고 방의

6) 최 일(1989)은 조선후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 주거에 관한 연구에서 마당의 구성형식을 각 재의 마당이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건물과 담장 등에 의해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분리형」,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공간적으로 구별되나 작업, 문간, 행랑마당 등이 안마당이나 사랑마당에 접촉되어 공간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나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일반형」, 마당이 안마당과 사랑마당에 혼재되어 있는 「미분화형」으로 분류하였다.

일부가 두 줄로 구성된 "겹집"도 나타나 실 구성이 부분적으로 복열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속채는 안채의 전면 우측이나 좌·우측 모두에 안채와 직교하여 一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아래채는 방, 도장간, 헛간 또는 외양간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생활상의 변화에 따른 부족한 침실 공간의 확보, 생활용품·곡류·농기구 등의 보관을 위한 수장 공간의 확대 요구 등을 수용하기 위한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3. 외부공간(마당) 구성

외부공간은 안마당, 사랑마당, 옆 마당, 뒤편으로 서로간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고 위치에 따라 기능과 내용, 공간구성방식이 다르다. 안마당은 외부에 대해 폐쇄적으로 구성되어 가족의 일상생활기능 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전이적 공간, 조망, 휴식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사랑마당은 대개 마을길을 사이에 두고 형성되며, 안마당과는 사랑채 또는 문간채에 의해 구분되며, 타작이나

농사준비 등 농작업으로 이용되었으나 농작업 기능이 소멸되면서 안마당으로의 통로역할과 안과 밖의 내외구분이라는 상징적 기능만 남아 있다. 옆 마당은 장독대, 우물, 식품저장고 등이 시설되고 주로 음식장만, 세면, 세탁 등의 사적행위가 이루어지며, 뒤편은 부엌 출입, 살림도구, 농기구 등의 수장공간으로 이용된다.

참 고 문 헌

1. 대구광역시(2003), 대구의 고 건축, 대구광역시
2. 이호열(1997), 경북지방 근대한옥의 유형과 성격, 건축역사연구 13.
3. 한지만, 이상해(2001.9),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형식과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권 9호
4. 광동엽(2002.4), 포천군 근대농가의 건축적 변화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3권 제2호.
5. 정명섭(1997.10),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의 마을과 주거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8권 제3호.
6. 최 일(1989),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백영훈·정준현(2003.6), 남해 도서지역의 민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4권 제3호.